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illegible]

社說

私學界의 盛事

一

先進社會보담 文明이 一步뒤떠러지고 文化施設이 貧弱한 우리社會의 現實的要求로 文化施設의 擴充이 絕叫되는 社會現實의 必然的要望이어니와 近來이要望에 應하야 巨大한 私財를公益事業에 投하는이들이 續續하야 出現하게되는것은 驚嘆할 것거은 現象이어니와 特히 敎育機關의新設, 擴充을 爲해서는 今年에 들어서만으로도 特志家의 犧牲的壯擧가 二三次가 아니엇던것은 吾人의 記憶에 새로우바 最近에도 私學界에는 連하야 喜消息이 三次나 報道되엇다。松都高普, 京城女子商業, 信川農民學院 三學園의 財團完成이 곳 그것이다。

二

松都高普는 昭和八年에 尹致昊翁의 五萬圓寄附가 잇슨後 이것을 中心으로 財團을 完成코저 그期成會를 組織하야 三四年間 活動한結果 宣教部十萬圓을 筆頭로 開城有志 四萬圓, 同窓會其他 一萬圓의 寄附가잇서 基地校舍不動産五十萬圓을 合하야 七十萬圓의 財團을 完成하게되엇거니와 京城女子商業은 于今 十年間 侍天敎에서 經營해오것인데 近者 經營難에 陷하야 存廢의 危機에 잇게되것을 보고 今年正月에 韓翼錫氏가 私財十萬圓을 投하야 그經營의任에 當하게되엇더니 얼마전에 韓翼錫氏가 再次 十萬圓을 喜捨하야 二十萬圓의 財團을 完成하게되엇스며 信川農民學院은 信川邑에잇는 男子中等校로 故王在德女史의 遺業을바다 李鍾天氏가 二十萬圓의 財團을 세워노것인데 今回 同校를 擴充코저 李鍾天氏가 時價十萬圓의 土地를 提供하고 또 李修完氏가 現金二萬五千圓을 喜捨하야 三十萬圓의 財團을 完成한것으로 이와가티 以上三校는 모다 財團의 設立 或은 擴充으로서 그基礎는 더할수업시 鞏固하게되엇다。

三

以上 三校의 財團完成에 依한 基礎確立은 勿論 各其 同校를 爲하야 慶賀할일이어니와 또한 朝鮮私學界를 爲하야 慶賀할일이다。이와 同時에 財團完成이라는 表面的事實보다도 上述한바와가티 그裏面에는 或은 巨大한 私財를 投하고 或은 心血을 傾注하야 그基礎를 세운 여러 篤志家들이 잇섯다는것을 特히 忘却할수업는 同時에 그 壯志와 功績을 多다고 아니할수 업는터이니 吾人은 다시 한번 이러한 私學을 爲한 個人、乃至 社會的 民族的 恩人들의 功績을 稱揚하여야할것이며 그들의 마음과 事業이 곳 우리 全體의 마음이 되게하고 事業이 되게하야 그네들이 뜻한바 事業을 完成하는 同時에 一層 그것을 延長擴大하야 적게는 不足한 敎育施設을 完備하고 크게는 民族文化建設의 基礎를 세워야 할것이다。

四

이것을 機會로 생각되는것은 敎育機關도 우리社會의 要望은 이에 끈치지 안코며、또 非單 敎育機關뿐아니라 全社會가 渴望하는 文化的施設은 이루 枚擧키難한바잇다。義務敎育實施가 아직 將來豫斷은 今日에잇서서 엇거니와 民主大衆敎育가 [illegible] 비롯하야 [illegible] 小學、中學의 擴充은 말할것도 업고 [illegible] 하나일것이며 [illegible] 目下의 [illegible] 事業은 말할 必要조차업다。이 모든것이 [illegible] 업시는 [illegible] 하야 다시한번 [illegible] 促하고저 하는바이다。

葡首都『리스본』에서 國家主義者大會

西叛軍代表와獨伊代表多數參加重大協議

巴里서는不干涉案組織討議

【倫敦二十六日發同盟】國政府는同條約案에 參加하기로 決定한諸國에對하야 다시協議를 究한後參加하기를 要請하기로 되엇다 佛國政府는 同條約案參加國政府代表로하여금 組織委員會를 設置하고 實施監視方案을 協議하기로 乃至 參加各國政府間의 連絡을 圖하리라고 觀測된다

有力紙의 셰빌리아特派員으로부터 報道에依하면 南部戰線에 잇서 西班牙政府軍二千名은 二十六日 叛軍에 參加하엿다한다

左右兩派混線

【앙데二十六日發同盟】二十六日세빌리아放送局으로부터의 叛軍側放送한바에 依하면 目下葡萄牙首都 리스본에서 國家主義者의 大會가 開催되며 西班牙叛軍代表外 獨伊兩國의 多數代表가 參加하야 西班牙叛軍에對하야 重大協議를 行한다고한다

【巴里二十六日發同盟】佛國政府에서 提唱한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은 各其各國政府의 同意를 어덧슴으로 佛

政府軍二千名 叛軍에加擔說

【메일부르二十六日發同盟】波蘭委員會設置地는 倫敦으로 決定되리라고 한다 시 그것을 拒絶치안흐리라고 觀測된다 佛國政府로서는 意向을 갓고 잇스나 반드

叛軍優勢?

【런지엘二十六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各地戰線에서 徐徐히 政府軍을 壓倒하고 優勢를保持하고잇다 二十六日 一萬二千의모록코軍部隊는 本國에 到着하야 氣勢를 올리고잇다고傳한다 그리고 모록코에는 三萬七千의部隊가 集結하야 待機하고잇다한다

報告를 期待하고잇다 그러나 日本政府에서는 不詳事件을 暫時두고라도 中山水兵射殺事件以來 日本軍官憲의 嚴重한 搜查에

强硬態度를電請

上海日本新聞通信聯盟總會서

【上海二十六日發同盟】上海日本新聞通信聯盟總會에서는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日本人俱樂部에 總會를開하야 成都事件對策을 協議하고 左와如한決議를行하야 政府當局에 打電키로하엿다

決議

今回日本人四名은 成都에서 中華民衆에게 慘殺되야 拉致殺傷을 當하엿다 그暴戾한點이 吾等同胞로서는 痛憤의感을抑制할수업고 本事件은 明白히國民政府의 抗日政策의 反映으로 斷然容許할수업다 政府는 모름지이 斷乎한態度로써 本事件에 對應키를希望함

一、被害者는 旅券을 携行한日本臣民으로 中國官憲으로부터 充分保護를 바듬 正當한 旅行者인것

一、國民政府、黨部가 日本의旣得權益을 無視하고 不法하게도 成都總領事館復活을 妨害하야 民衆을 煽動한것이 事件의 重大原因의 하나로보이는것

이것이다 最近 中國各地에는 抗日氣勢가 再燃하고 各種不祥事件이 頻發하야 이것이 國民思想에 反映하야 如斯한狀態로는 如何히 兩國이 國交調整에 盡力하더라도 拔本塞源

日 國民政府外交部長의 聲明에 一條에 嚴重抗議 ... 六日 國民政府外交部長의 聲明에 [illegible] 當局方針을 確立할터이다

[illegible] 外交部에서 [illegible] 必要한 解決方針을 [illegible] 根本的 抗日 [illegible] 決한다 [illegible] 根本策을取하야 이重大한 犧牲으로하여금 無意味하게하지안코면아되다 昨日駐中官憲將校

는 本事件對策을 協議하얏는 데 根本的인 생각은 모다 同樣이엇다 適當한 方法은 交外折衝을 通하야 解決할거나와 軍部는 全面的으로 充實하고 側面的으로 援助하야 目的貫徹에 邁進하고싶다

渡邊、深川兩氏 成都서慘殺判明

【重慶二十七日發同盟】成都에서 暴徒의襲擊을바든 大毎特派員渡邊洸三郎及 上海每日新聞記者深川經二兩氏는 成都外城에 잇서 暴徒에게慘殺되것이 判明되엇스나 死體는 어느者가가저다 가 隱匿하여두엇는지 아직發見되지안흔다

【重慶二十七日發同盟】大毎特派員渡邊洸三郎及 上海每日新聞記者深川經二兩氏는 成都外城에 잇서 抗日暴徒에게 無慘히殺害된것이 判明되엇다

喜多少將의 重大聲明

【上海二十七日發同盟】大使館附武官喜多少將은 成都事件에 關하야 二十七日正午 如左한重大聲明을 發表하엿다

今回成都事件에 關하야 가장 重大한點 二點이 잇다 即

極東情勢에備코저 英、香港軍大擴充

九龍에大兵舍를築造

【香港特電】香港駐屯 英國陸軍은 各部門에 잇서서 最近 漸次 擴充增加되고잇는데 英國陸軍當局에서는 將來 極東의 事態에備하기爲하야 香港에 强力한 軍隊를 常駐케하려고 今回 二千萬 香港弗이란 莫大한 經費를 投하야 九龍側에 大兵舍其他를 築造하기로 決定하엿다

極東英國陸軍의 本據라고도할 이兵舍가 完成되는同時에 勿論 本國으로부터 軍隊가 香港에 增派될터이다 그리고飛行場擴張도 目下 着着進行되고 잇는中이다

成都事件契機로 排日空氣를一掃

斷乎決意로事件解決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은 發生以來 四日이 經過하엿스나 詳細한 事情이 判明되지못함으로 一間의報告를 기다려 有效適切한 日本政府로서는 現地에派遣한後 交涉方針을 確立하기爲하야 同

北上後 中央과 冀察側와의 關係調整 및 旣定計劃推進에 努力할터이다

成都事件犯人 銃殺에處刑

【南京二十七日發同盟】國民政府 外交部에서는 成都事件犯人에 關하야 二十七日 非公式으로 如左히 發表하엿다

成都事件의 犯人劉相先、蘇得爵二名은 二十四日 暴動勃發과함께 現場에서 逮捕되어二十六日午後 銃殺에 處하엿다

定例次官會議

【東京電話同盟】定例次官會議는 二十七日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廣田首相官邸으로부터 閣議에서 決定한 國策項目에 關하야 說明한後 各省에서는 國策項目에 基하야 各其 諸準備를進行하매되리고 述하고 各省分擔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特히 問題가 될省에 關한

一、移民問題

一、資源問題

一、電力統制問題

一、海運問題

一、航空問題

一、保健問題

의 各項目에 對해서는 吉田調査局長官으로부터 調査局의 方針을 披瀝하고 協議하엿다

王克敏氏北上 冀察經濟委員長就任

【北平二十七日發同盟】王克敏氏는 九月一日 上海出發 北上하야 冀察經濟委員長에 就任키로 決定하엿다 川越大使北上後 津石鐵道建設問題及 天津電業公司創設、日中經濟合作經濟計劃等이 着着進捗되어 王氏의 北上은 오히려 時期에 晩한感이잇다

世界最大浮船渠 眞珠灣에設置

千五百萬弗의豫算으로

【華盛頓廿六日發同盟】米國海軍作戰部長에스탄들레提督은 하와이 眞珠灣에 新設할 世界最大浮船渠建設에 關하야 二十六日左와如히 言明하엿다

하와이眞珠灣에 新設할 浮船渠는 太平洋岸의 造船所에서 建造하기로 決定하엿다 海軍에서 建造할는지 私設會社에 請負식힐는지는 아직 決定치못하엿잇다 入札한다고하면 九月三十日頃에 될것이다 豫算은 約一千五百萬弗이다

川越大使歸任延期

【靑島二十七日發同盟】川越大使는 北中視察을 終了하고 二十八日午前 飛行機로 成都에 赴任하기로 決定하고 早朝부터 準備中이다 그리고 岩井成都總領事代理는 重慶에 남아잇서 本省과의 連絡에 當할터이다

山本高橋兩氏는無事

【上海二十七日發同盟】四川省成都로부터 成都에向하야 旅行中에 行衛不明을傳한 仁丹公司漢口支店員 山本高橋兩氏는 今回의 事件에는 多幸히難을免하야 無事한것이 判明되엇다

七日 上海丸으로 歸任할豫定이 든바 颱風으로 出發을 延期하고 明日 出發키로 變更하엿다

糟谷領事成都向發

【重慶二十七日發同盟】糟谷重慶領事는 現地中國側官憲과의折衝과 被害日本內地人救援次 二十

日本人二名被殺 中央通信도發表

【南京二十七日發同盟】國民政府는 今日機關通信 中央通信을 通하야 成都事件에서 日本人二名이 殺害되엇음을 公表하엿다 右에 依하야 大每記者渡邊洸三郎氏、上海每日記者深川經二氏는暴徒에게 殺害된 二名인것이 確實케되엿다

死者는업는듯 遭難者田中氏電報

【上海二十六日發同盟】成都에서 遭難한 滿鐵社員田中武夫氏로부터 二十六日夕刻 上海滿鐵事務所에

二十四日暴徒에게 襲擊되여一行中三名이 負傷하엿다 依復되는대로 飛行機로歸滬하겟다는簡單한 入電이잇섯다。右에依하면 一行은 死를免한 模樣인데 電報가 中國人의 손을거처打電되것한바 田中氏以外의 生死는아직不明이다

西班牙動亂畫報 (上)(下)

(上) 西班牙의軍港 말라가에淀泊하고잇는 政府主力艦 (下) 政府軍艦의 모록코兵上陸을 阻止코저 砲擊한結果 火焰衝天한 말라가港의 一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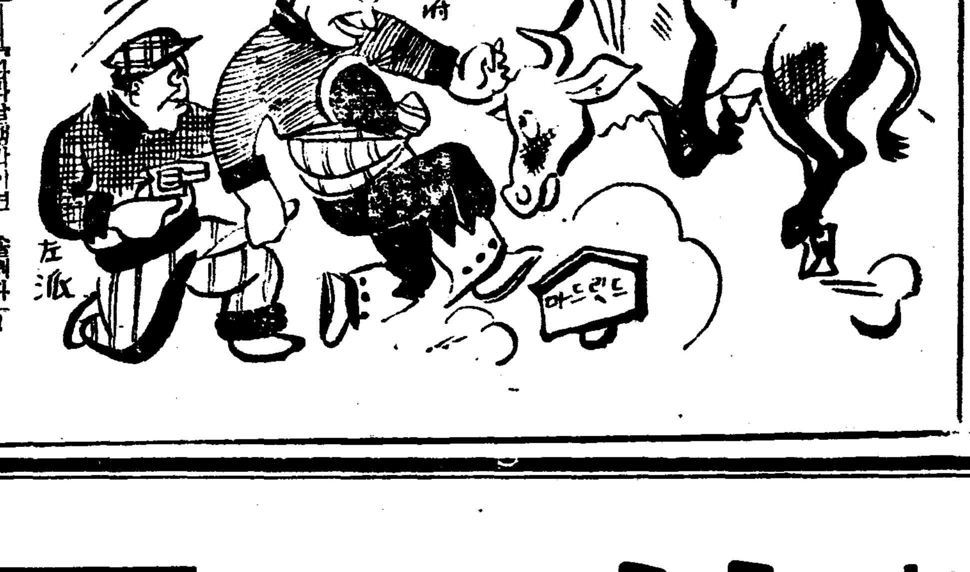
南進政策에對抗 蘭印서軍備擴張

【海牙二十六日發同盟】和蘭首相 코리아博士는 二十六日下院에서 政府는 最近 蘭領東印度 防備强化에 關하야 第二三艦隊新造、水雷艇四隻의 建造에着手할 것을 決定 때 一層更히 蘭領東印度 防備强化 次로 이미 注文한 도르니에 飛行艇六隻外에 戰鬪機爆擊機三十九隻을 購入키로 決定하엿다 고 發表하엿다 右發表는 最近 日本의 南進政策을 念慮한和蘭政府의 積極的南方防備强化策으로 注目되다

蘇大使招致코 有田外相抗議

極東軍越境事件으로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七日外務省에 駐日蘇聯大使유레니에프氏의 來訪을求하야 二十六日 東滿東部烏蛇溝에서 勃發한 蘇聯極東軍의 不法越境事件에 關하야 嚴重抗議를 行하는同時에『最近滿蘇東部國境附近에 赤軍의不法行爲가 頻出하는 것은 極히 遺憾이다 國境線에 잇서 此等刺激的事件이 發生하는것을 防止치안흘時는 日蘇兩國關係에 重大關係를 招致할것인바 蘇聯政府의嚴正한 反省을 求한다』는 旨를 强調하엿다 이에 對하야 유레니에프大使는 現地로부터 何等報告가업다는것을 理由로 即答을 避하고 辭去하엿다 그리고 一方 植田駐滿大使는 事態의 重大性에鑑하야 綏芬河의 興津領事에게 訓電하야 蘇聯駐在官憲에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케하기로 手續을取하엿다



重光駐蘇大使 正式으로發令

【東京電話同盟】新駐蘇大使親任은 本日左와如히 發表되엿는데 署中임으로 親任式은 行치안코 官記는 內閣에서 外務省에傳達되엿다

從四位勳二等 重光葵

任特命全權大使 命駐蘇聯駐箚

南總督着任後 最初의局長會議

南總督着任後最初의 定例局長會議는 二十七日午前十時半부터定例대로 第三會議室에서 開催되엿는데 大野總監列席 田中政務總監 竹內務 富永學務三局長으로부터 水害狀況의 報告가 잇섯슴뿐으로 十一時散會하엿다

本社辭令

八月二十七日附

營業局次長兼廣告部長 宋秉暉

依願解任

夕刊後市況 廿七日

◆東京短期◆

	前引	高値	低値
東新	三四三〇	三四五〇	三四三〇
日産	七六三〇	七六七〇	七六三〇

◆大阪短期 集記◆

大新	六七二〇	(一〇低)
鐘新	一六三〇〇	(一〇高)
日産	七十九〇	(三〇低)
東新	二一四三〇	(一〇低)

◆生糸 後引◆

當限 十一七〇〇 先限 十〇六〇〇

◆遞井 人絹 後引◆

當限 十四〇〇 先限 大〇三〇

早稻田大學

校外生募集

全國 勤勞靑年을爲하야左記의講義錄을通하야校外敎育을行한다

諸者는모다本大學의校外生으로서待遇한다

小學校卒業生이면 누구나入學自由

詳細한것은內容見本에依하야아시라

W

秋季新學年・申込의受付開始

中等學校程度

講義	月額
中學講義	前期・後期 各一圓 月一ヶ年
商業講義	一圓 月一ヶ年半
高等女學講義	一圓 月一ヶ年半
電氣工學豫備講義	一圓 月一ヶ年

專門學校程度

講義	月額
政治經濟講義	一圓二十錢 月一ヶ年半
法律講義	一圓二十錢 月一ヶ年半
文學講義	一圓二十錢 月一ヶ年半
建築講義	一圓三十錢 月一ヶ年半
電氣工學講義	一圓三十錢 月一ヶ年半

內容見本

見本은반듯이希望하는講義錄을分明히써서葉書로申込하시라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四五

洛東江에 刻刻增水
密陽一帶水魔再襲
저번被害民、死에直面

【密陽支局電話】저번의 수해로 요새겨우 흙이패저 안돈되자 이재민들은 물때문에 문허진 바람벽이나 온돌방을 수선하는중이요 아직도 자기네집에 들지를 못하고 잇는 이때에삼랑진 일대와 락동강연안의 밀양군 각수해지는 또다시 수란의 쪽위에 유린되여 이제는그들은 완전히 죽엄의 막다른골목에 부닥치게되엿다 지난이십륙일이때의 비는 만히왓고 떠구나 이십칠일 새벽령시 부터 여섯시까지는 뢰성벽력이 계속하며 비가 쭉 주하야갑작히각하천은 범람하고 산이 문허젓다 떠구나 락동강은 또다시증수하야 이십칠일 오후세시경의 삼랑진의 수위는 칠메터륙십팔로서 매한시간마다 칠、팔센치씨 증수되는중이다 이로인하야 삼랑진일대는 또다시 오백여호나 침수되고 삼천명의 피난민은 삼랑진역구내가 학교 교회당、부근산우에 피난하엿다 하남면수산시(下南面守山市)에도 일백륙십호나 침수되여 팔백명이 피난하고잇다 그리고 그외도 급속한증수로 말미암아 뒤를니어서 피난하고잇다

경상남부선(慶尙南部線)은 삼랑진부근의선로가 침수되여 이십칠일아침부터는、불통되여 밀양과 각지사이의 자동차교통도 전부두절되엿다 그런데 밀양에서는 이십칠일오후 여섯시까지의 우량은 일백삼십사미리로서 뜨는아직도계속하야 오는중이다

三浪津一帶에暴雨
저번水害地에또浸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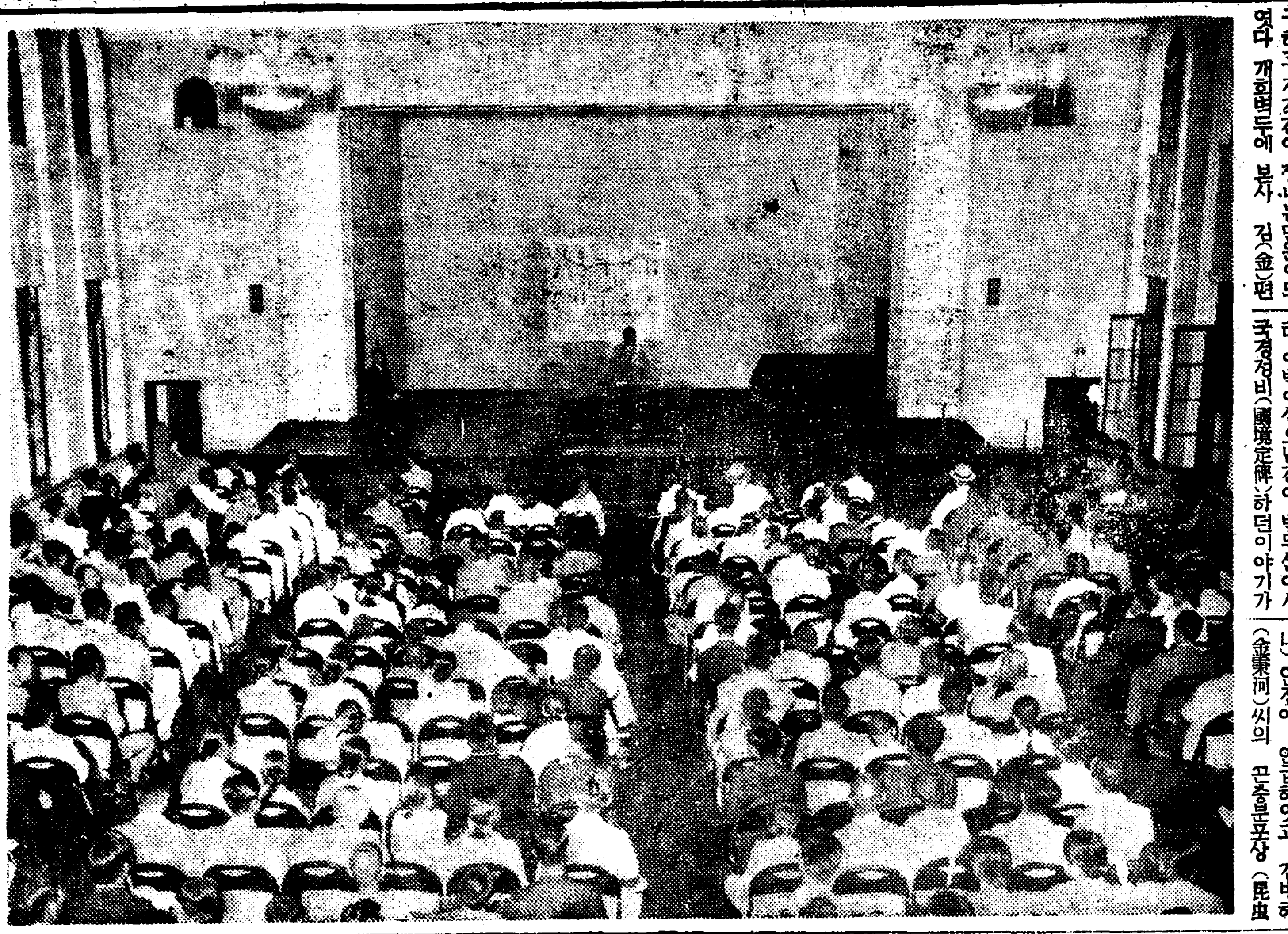
【釜山支局電話】이십륙일밤부터 쏘다지는 비는 이십칠일 오후 다섯시까지에 계속하야 삼랑진(三浪津)은 전번수재때에 터진 뚝으로부터 물이 들어밀어 약오백호가 침수되야 리재민 약 일천오백명은 산으로 피난하고 잇다 밀양군 하남면수산(密陽郡下南面守山)에도 약백호、상남면(上南面)에도 약백호가 침수되야 리재민약오백명은 역시산으로 피난하고잇다 량산(梁山) 사천(泗川) 원동(院洞)등지에도 침수가옥이 모다약천호에 달하며 함안(咸安)수리조합구내에도 제방이문허저서 약오백호가 침수되엿다 아직도폭풍우가 계속하고잇슴으로 당국에서도 아모 구제책을 취하지못하고잇다

義城郡一帶의 平野도水國化

【安東支局特電】지난이십륙일오후세시밤부터 폭풍우가 약 일백이십미리가량이나 쏟주하야 락동강물이 또다시증수하야 의성(義城)군서부일대의 평야는 일천정보가량은 침수되엿슴으로 농작물은 전멸상태에빠저잇다한다

銀幕에나타난白頭山
實感과感激의밤
第一夜、超滿員의盛況!

본사주최의 백두산탐험의 영화급 보고강연대회는 예정과가티 이십칠일 오후일곱시반부터 막을열엇다 이날은 초대한분만이 입장케되엿는데 비가오는데도불구하고 정각전에 장내는만원이되엿다 개회벽두에 본사 김(金)편즙국장으로부터 인사말로 간단한 개회사가잇슨다음 사공환(司空桓)씨의 사상의백두산(史上의白頭山)이라는 이야기로부터 보고강연이시작되엿는데 지금으로부터 이백이십오년전에 백두산에서 국경정비(國境定碑)하던이야기가 잇섯스며 차례대로 강재호(姜在鎬)씨의 백두산의 지질학적고찰(地質學的考察)에는 백두산이 대륙과 조선반도를 련결시기고 잇는 지위상 중점과 화산(火山)인점에 언급하엿고 김병하(金秉河)씨의 곤충분포상(昆虫分布上)으로본 백두산의 이야기는 백두산속의 곤충 특히 나비이야기에 관중의 흥미를도두엇스며 신성우(申聖雨)씨의 백두산역의 위생학적고찰(衛生學的考察)은 특히산악병(山嶽病)에대한 지식을 부어주엇고 리상호(李相昊)씨의 통신(通信)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탐험에 전서구(傳書鳩)로서 어떠케얼마나 고생하며 통신련락을하야 일각을다투어서 독자에게 보도를하엿든가를 들여주엇스며 끄트로 서춘(徐椿)씨의 보고연설은 단원전부가 무사히 이장도를 마친것에 대단가사와 감격의말로써 끄틀매저 아홉시반경에 보고강연이 끄치나고 이어서 본사영화반이 촬영한 『필름』이시작되엿는데 탐험단의 발자최를 따라 전개되는 그모양이 여실히 나타나서 천지(天池)의 성자까지 보고 무사히 돌아오는 양이마치 관중으로하여곰 스스로탐험하고 오는듯한 느낌을 주엇다 백두산에대한 다각적지식과 실감을 흠뻑부어준 이대회 첫날밤은 오후열시반경에 무사히 마치엿다



白頭聖嶽의實景實感

咸安水組堤防決潰
一千餘町步水國化
慶尙南部線"턴넬"崩壞

【咸安支局特電】전번수해에 정신을모다 일흔 함안(咸安)지방에는 이십륙일오후 아홉시부터 또 다시호우가 쏟주하야 이십칠일오전 여덟시까지에 일백오십미리나 내리어 함안수리조합 제방일부가 결궤되고 또배수제(排水堤)가 여러군데결궤되야 그미테잇든 일천삼백정보의 농작지는 삼시간에 수국화하야 일천여명소작인은 전전긍긍하고잇다 제이수리조합 구역내가야(伽倻)시가를 둘러싼 제방도결궤될념려가잇서서 오백여호주민은 속속 피난중이다 경상남부선(慶尙南部線)군북(郡北)진주(晉州)간의 『턴넬』이 문허저서 긔차는불통되고잇다 칠서면대치리(漆西面大峙里)에는 산이문허저서 집두호가 덥치며 녀자한명은 즉사하고 세명은 중상을 당하엿다 각지의 교통이 전연두절되고 침수가옥이 만흠으로 본지국에서는 꾸구호반을 조직하야 구호에 노력중이다

災地金海邑에 水魔危險迫頭

【金海支局特電】지난이십칠일밤부터 떠붓기시작한 폭풍우로김해읍내호계천(虎溪川)과 금릉천(金陵川)의 제방은 저번의 폭우로 결궤되엇든곳에 넘물이또 범람하야 금해시내에 침수하엿다함은 긔보와 갓가와 이십칠일오후다섯시부터 또다시 계속하는 폭우는 강한바람과 떼부려 매우불리고잇다 락동강물은 아직도 증수되기때문에 매우위험한데 이모양으로 급속상승분한 계속하는때는 교통은 물론、전신전화도 불통될념려가 잇서서 이밧신이최후일는지도 알수업는 위험상태에 절박되여잇다

利川交通杜絶

이십칠일 오후세시 리천(利川)경찰서장으로부터 경긔도경찰부에도착된보고를보면 이십륙일부터 이십칠일까지 쏘다지는비로 말미암아 리천죽산(竹山)간、리천려주(驪州)간 리천、리포(梨浦)간、리천경성간 리천파주(坡州)간의 교통은 도로가 파궤되야전부두절중이라고한다

暴風雨의繼續으로
榮州邑危險切迫
女子一名屍體도發見

【榮州支局特電】경북영주(榮州)지방에는 이십륙일부터 이백이십밀미리의 폭우가나려서 영주천(榮州川)은 삼미돌이증수되고 삼십세가량된 여자의시체한개가 떠나려 가는것을 발견하엿스나 주소성명과 죽은원인은알수업다 비는그칠줄몰르고 작금쏘다진다 영주면창진리(昌津里)뚝이터저서 물이너머드러 가옥오십호가물에잠기고 전답 이백두락이 매몰되엿다 그밧게각면의피해는 교통두절로 자세히는알수업스나 상당히만흔모양이다 그리고 쭉풍우로변하야 일반이심은 불안중이다 수방단(水防團)은 총출동하야 활약중이나 비가여대로 계속한다면 영주읍내는 자못위험한지경에 이르겟다

達城水組의堤防決潰

【大邱支局電話】이번에 거듭된폭우로 경북달성군 달서면(達城郡達西面)에잇는 수리조합(達西水組)보둑이 흙떠떠나려간까닭에 그부근수천정보의논이 물중에 잠겻고 따라서 그근처에잇는 칠십여호의주택도 전부침수 홍수에무려저서리재민들이서로붓들고호곡하는정상은보기에딱하다

名唱이曲目嚴選
特技골나서力演
今夜! 慈善舊樂大會

금번의 수해는 예년에 비하야 더욱 비참한바가 잇슴으로 그 만분의 일이나마라도 구제코자 하는 성의아래 본사의주최와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의 찬조로써 오는이십팔일、구일의 량일밤 자선구악대회를 개최한다 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될수잇는대로 최선의성적을 어떠써 우리들의 성의를 혀되게 하지안코자 악사(樂士)와 곡목(曲目)선택에 여간 고심을 떠하지안한터로 피서간회원들을 비상소집까지 하는동시 연일 련습에 눈코뜰 사이조차 업는 형편이다 금번의 연주되는 곡목은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삼국지의 판소리는 물론 단가까지도 중요한것은 거의하나도 빼지 안하얏스며 거긔다가 수심가 잡가등을 약간 가미시키어 더일층 청중의 흥미를 도두기로되얏다 춘향전이나 심청전도 한사람이 죽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긔특장을 딸하 토막토막을 난호앗다。가령 리동백(李東伯)씨가 춘향자탄가(春香自嘆歌)를 한다면 송만갑(宋萬甲)씨는 옥중가(獄中歌)를 하고 김창룡(金昌龍)씨가 범피중류(泛彼中流)를 하면 정정렬(丁貞烈)씨는 『심봉사황성가는데』를 하게되는것이다。구악대회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겟지만은 이번한 악사에 이만한 곡목을 가추어가지고 나오는것은 이번이 처음일것으로 지금부터 만성의 인긔가 비등되야잇다。수해당한 동포의 참상을 구제하는의미로든지 또구악에대한 문권을 느리는 의미로든지 그야말로 한돌틀가저 두마리의 새를 잡는 조흔긔회를 노치어서는 안될것이다。그리고 작일 발표한 악사이외에 다시떠 멧분의 참가가 잇슬 모냥이다 그분들의성명은 아래와갓다。

朴綠月 方錦仙 李眞紅 申錦香 金鍾守

水害義捐金

五圓 天道教一部會元山支會(元山淸日新學院)
三十圓 慶南統營邑大和町李龍振方
二圓 統營商業硏究會
同 統營佛敎靑年會
六十錢 咸北茂山郡茂山稅關出張所 稅關監吏 國松彥三郎
日計 二七六〇
累計 一、五九五八一

漁幕이문허저
六名漁父生埋
迎日立岩洞의慘變

【浦項支局電話】긔보=영일군입암동에사봉으로 이백촌민이 생매되엿다는것은 그후의조사에의하야 오보임이판명되엿고 그진상은 다음과갓다 이십륙일낫부터 퍼붓기시작한 폭우에 오후열한시반쯤하야 영일군동해면입암동(迎日郡東海面立岩洞)근처에 잇는산으로 발굴도로공사중인 산이 문허저서 그미테잇든 신전원길(新田源吉)의 어막(漁幕)이 매몰되엿는데 그 어막에는 삼십명이 묵고 잇섯스나 다행히 이십사명은 어데나가고 업섯슴으로 무사하엿고 그어막에 남어잇든 여섯명은 무참히 즉사하엿다

泗川邑泥海化
四百餘戶浸水!

【泗川支局電話】이십륙일 오전아홉시부터 퍼붓는폭우는 동열두서까지에 밤서사천읍내 평화동(平和洞)시장통을 중심으로 사주리(泗洲里) 중선리(中宣里)룡당리(龍塘里)등을 몰바다로맨들어 이일대 사백이십여호는 침수되엿다 군청 면소 경찰서와 소방대등은 총출동되며 구조중이다 가옥도괴 교량제방괴궤들이 곳곳에잇고 농작물의피해가 수만원에달한다 이십칠일 오전열시까지 물은 아직빠지지안코 교통은 전부끈허젓다 위선 중선리와 룡당리일대의 침수가옥 구십호의 오백여명 리재민에게는 면구호대에서 주먹밥을 논아주고잇다 이번홍수는 사천에서는 근래 처음가는 큰홍수이라고한다

同業東亞日報
發行停止處分

동업동아일보(東亞日報)는 이십칠일부로 신문지법제이십일조에 의하야 당국으로부터 무기정간의 처분을당하엿다

井邑에도豪雨
平野는水國化

【井邑支局特電】정읍지방도 이십륙일 오후열시부터 이십칠일 오전열두시까지사이에 비나린분량이 일천미리에 달하여 각지와의 교통이 두절되여 자세한 피해상황을 알수가업스나 물에잠겨서 전멸상태에 빠젓다 그리고 수성리(水城里)에는집다섯채도 침수가되엿다 정읍과 정주(井州)사이 정읍과 신태인(新泰仁)사이 정읍과 부안(扶安)사이의 자동차는 전부 두절되엿다 전번비에 침수된논은 일백십칠만평으로 십만원의 손해에 달하엿다하는데 그에비하면 금번 피해는 현재 판명된것만하여도 그두배나 되리라한다

松旨里山崩으로
兩名即死、重傷者多數

【密陽支局特電】이십칠일아친의 폭풍우로 말미암아 오전다섯시경에 삼랑진면송지리(三浪津面松旨里)와 삼랑리의 두개소산이 문허저서 그로인하야 송지리의 칠백사십륙호박수복(朴守福)의아우 도복(道福)(三)과 삼랑리 김명수(金明秀)의 어머니백수인(白秀伊)(五四)의 두명은 즉사하고 그외에도중상자여섯사람을 내엇다그리고 부북면감천리(府北面甘川里)에도 로인한사람이 물에 떠내려가서죽엇스나씨명은아직알수업다 그외는아직조사중이라한다

列車와衝突重傷

【沙里院支局特電】이십칠일오후 여섯시사십분 안동(安東)으로가는남조미을행차는마동(馬洞)역으로부터약십정가량떠러진 선로우에서소풀을띄끼고잇든 정제술(鄭濟述)(二九)과 충돌하야 정제술은 두개골이깨어저 혼도되엿슴으로 약십분동안 정거하야 옹급치료를한후 그차에시러다가 사리원(沙里院)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자못생명이 위독하다

百八十校八百名參加
朝鮮中等校健鬪
培材、崇德、一高、海高의猛躍
全日本中等陸上對抗

日本學生陸上競技聯合主催의 第二十二回 全日本中等學校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二十六、七兩日間 甲子園南運動場에서 行한바 參加校는 中等校部、師範部를合하야 百八十七個校에 達하는盛況을 이루엇는데 兩日間의『컨디슌』은 降雨로 因하야 자못 不良하엿스나 八百餘名選手들은 母校의 名譽를 질머지고 力戰奮鬪끄테 養正高普의 連三年制覇의 꿈은깨여지고 마럿다 그리고 初出戰의 培材高普 崇德學校 海州高普 第一高普等의 代表選手들은 各種目에 놀라운戰績을 남기엿다

【千五百米】1高田(八女工)四分廿一秒 2井上(横濱商)
【棒高跳】1蘇鎭南(京城第一高普)三米五五 2樋田(宮中)三米五五 3小畑(愛知一中)三米四〇 4川島(八女中)三米三〇
【投槍丸】1畦地(都島工)一三米五七 2加藤(鶴岡中)一三米〇六 3二瓶(札幌一中)一三米〇五 4齋藤(勝山中)一二米九九 5張聖燮(養正高普)一二米六五 6白承相(養正高普)一二米四四
【走幅跳】1村方(八女工)六米四一 2馬鍾國(養正高普)六米四一 3金鳳元(海州高普)六米三六 4裴埈煥(寧邊崇德)六米一三
【高障碍】5崔禹榮(海州高普)
【百米】1金裕澤(培材高普)十秒二
【四百米】1李禹榮(寧邊崇德)五二秒七
【投圓盤】2張聖燮(養正)三四米七二 4白承旭(養正)
【四百米繼走】1培材高普(印庚煥、金裕澤、林基洙、李東爽)四五秒七 3海州高普 4養正高普
【八百米】4許學洙(寧邊崇德)
【五千米】4李鍾鉉(培材高普)
【三段跳】1羅綱成(光成高普)一四米二六 3金源植(海州高普)
5裴埈煥(寧邊崇德)
【二百米】1金裕澤(培材高普)二三秒二 6(崇德)
【低障碍】1李禹榮(寧邊崇德)二五秒三
【投鐵槌】1印庚煥(培材高普)
【千六百米繼走】1寧邊崇德學校(宋壽鳳、裴埈煥 許學洙 李禹榮)三分三八秒六 4養正高普
【總得點】
培材高普、寧邊崇德學校 各二十七點。養正高普二十二點。海州高普二十四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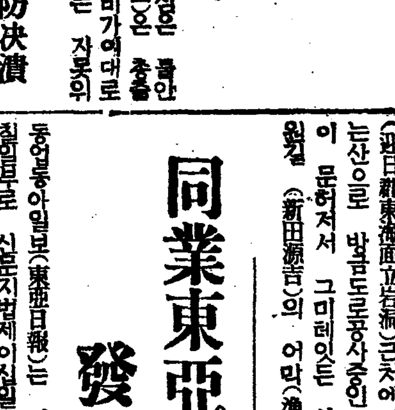
●돈? 병? 약?

병을모르는것도아니오 돈이업는것도아니다 조흔약을 효구하야한다 신용잇고 고명한 신성당은 조약이 영하다고 이름닛스니 조흔약을구하여 고통하는분은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문의하시오!

신성당취급약명과

병명	약명	가격
체증 속병 엔과	겡오ㅣ	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림질 냉병 연증	구로벨	완고용 구원, 만성용 오원, 급성용 삼원
매독	푸로타ㅣ	완고용 칠원, 중증용 오원, 경증용 삼원
부족 늑막 염증	나오빼ㅣ	삼기용 오원, 이기용 십원, 초기용 이원
보옹 절머지는 약	가이자ㅣ	중증용 오원, 경증용 십원
기침 해소 천식 담에	에치삐ㅣ	완고용 삼원,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치질 약	엥구루	중증용 이원, 경증용 일원

◎어떠케하면 좀더잘사나?



우리가 이세상에 생겨나서인생고해(苦海)라고、고생만하고산다 쌍가마(雙轎子)안에도 서름이잇다고 행복스러운중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불행이잇다 돈이업서 하고싶은일못하며 돈은만어도 병이잇는지 병은업서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 만호면서도 번거러가면서 병을알는다든지 얼마히들어서 말할수업스나 제일고통스러운것은 몸에병이잇는것이다 신외무물이라몸에 병이잇고는 영웅열사도못견대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돈이만허도쓸데업고 지위(地位)가놉다해도 다ㅣ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미테비접만들어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떠구나몸에무서운큰병이잇다면 당장에죽을것갓다 감기만들어 머리만좀아퍼도 견듸지못한다 의학(醫學)상으로 보면 무슨병이든지 대소를물론하고 다죽는병이라한다 그런데우리는 그런줄은 모르고의학과 위생(衛生)의지식이 업기때문에 항상병을알고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잘살고행복스러운생활을 할바에는제일병에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걸녀도 그병이 점점중하야저서 죽게까지 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 신효한 약을구하여서써야하겟다 그러면 어느약이제일조흐냐 삼척동자라도 다ㅣ아는 서울신성당약이 무슨병에든지 제일 조타한다 이것은 입달닌 사람이면 다ㅣ말하거니와 떠욱 각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잘증명한다 날마다 나타나는 광고를 보드라도 이것이확실히증명하는것이다 호미로막을것을 가래로도 못막게되니 하면 이글을 보시면병에만는신성당약을 꼭쓰시오。행복과명은서울신성당으로부터! 신성당약외에 무슨약이든지쓸것이 업사오니 다소를물론하고 제일먼저 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정 제일큰 환명(丸명)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시오 진체구좌는 경성四九五〇번입니다 주문하시는대로 당일로보내드립니다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ㅣ KAIZER 가제일

가이자ㅣ는 신체의쇠약한조직을 다시 소생식키는 보음보양젊어지는약으로 양기를 왕성하게 하고 정력을씩씩하게하는 명약이다

사람은 보음보양해야 오래살고 원기가왕성하야 인생향락도 영구히 잇게하여야한다

폐병 부족증 늑막염에
나오빼ㅣ NAOPERI 가제일

폐병은 불치의난병으로말하면 사망자가수십만명이되는대종래의치료는 절대로안낫는다고 하엿스나 그래서 입대까지는 완전히 치료된다

림질 대하증 냉병엔
구로벨 KUROBER 이제일

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질성 방광염 자궁내막염 고환염(신증) 으로된 질병에 효력이있다

매독엔
푸로타ㅣ PROTERI 가제일

매독은선천후천 두가지로 세상제일무섭고 지독한 병인대 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는이 대개사람이 살수업게되나니 푸로타ㅣ는 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 효력을 볼수잇는매독약입니다

發賣元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大京城市街地計畫

幹線道路網을發表

大路、中路等三百餘線

지작부터 작성중이든 경성시가지계획(市街地計劃)의 가로망(街路網)과 토지구획정리지구(土地區劃整理地區)는 경성부에서 결정리유서(決定理由書)는 이제 총독부내무국으로부터 발표되엇다 시가지가로의 등급은 광로(廣路)대로(大路) 중로(中路)로 논하엿는데 신이미돌로부터 오십사미돌의 폭원(幅員)을 가지게되엿는데 다음과 가등급분으로 설계되어잇서서 그중에는 기왕된것도 잇스나전연계획중의것도 만히잇서 금후 점차로 진행하기로되엿다 그런데 로선의류별을보면 다음과갓다

▲廣路 五〇米以上
▲大路 第一類 三四米以上
第二類 二八米以上
第三類 二四米以上
▲中路 第一類 二〇米以上
第二類 一五米以上
第三類 一二米以上
▲小路 一二米未滿

또 등급별의로선수를보면 다음과갓다

等級	路線數	幅員	延長
▲廣路	一	五〇米	三、五〇〇米
▲大路	一	三四米	四、八六〇米

合計 三一九 …米

京城府會召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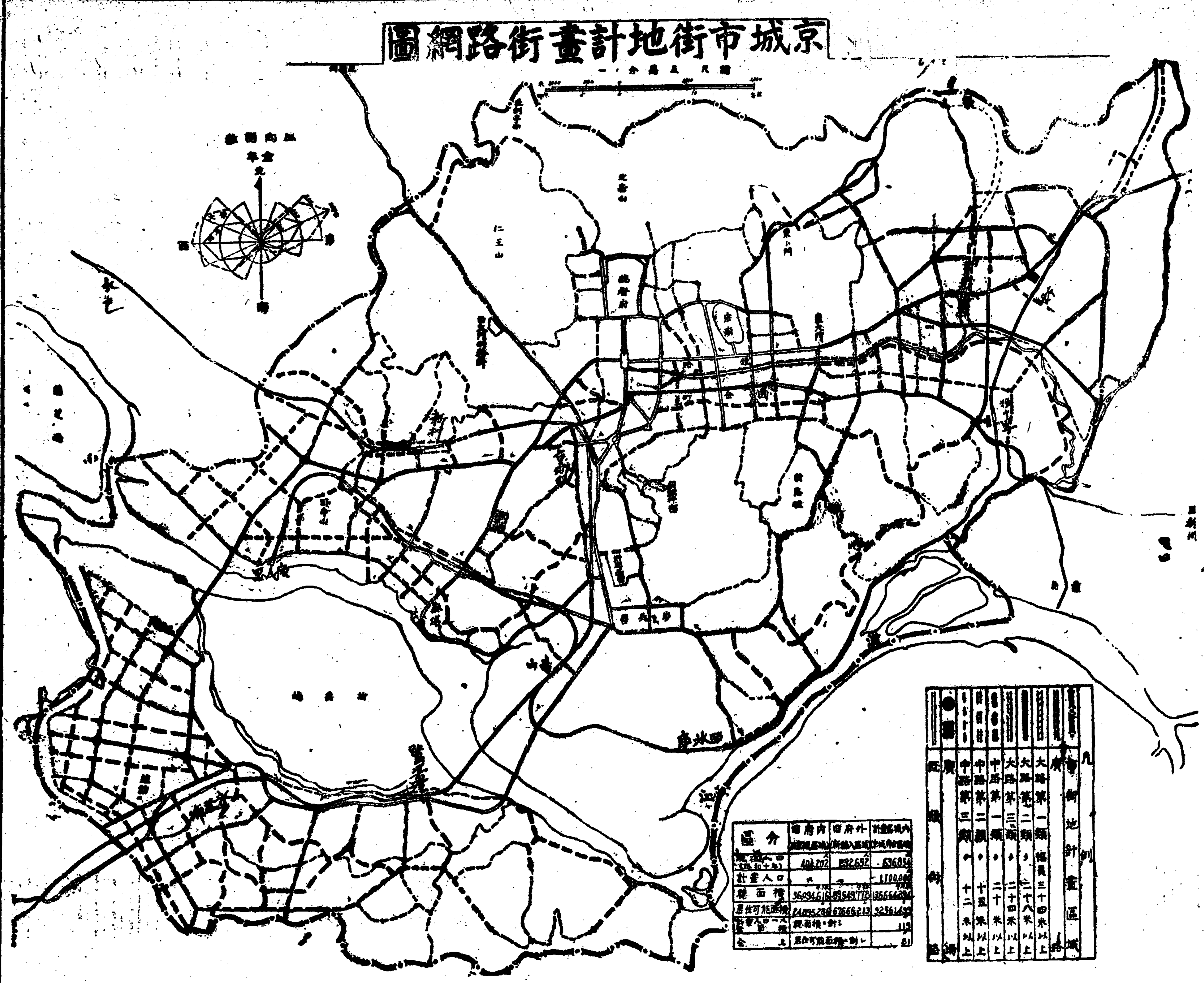
경성시가지계획가로망(市街地計劃街路網)과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土地區劃整理施行地區)결정 …

十年間貞操代價 "짱크"로密航歸國

【仁川】빈곤한 가정에 태여난 그운명도 가련커니와 야박한부모를 맛나 십칠세의 중국인에게 팔니여 중국남북지방을 두루한지 십년만에 그래도 내 …

青葉莊石築崩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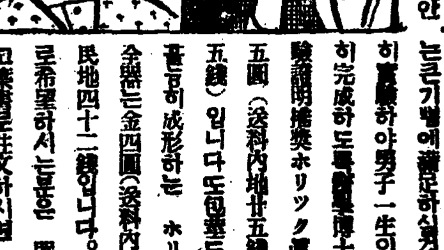
이번비로 정릉정 청엽장(青葉莊)주택지로 고천(古川)이라는 사람의 소유인 높이 스물다섯자가량되는 돌축대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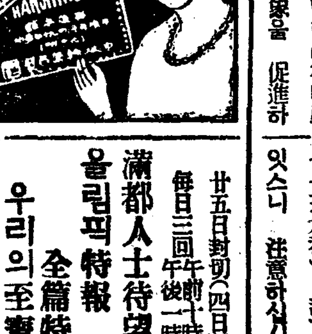
京城市街地計畫街路網圖

性的健全으로 기뻐하는男子와 憂鬱에嘆息하는男子

物理作用 生○器健全發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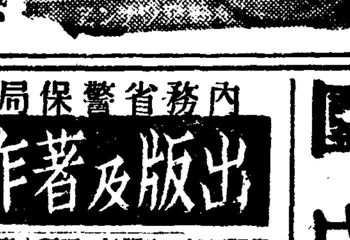


世界的腫症名藥 韓氏膏藥 到處藥房販賣 서울 한씨고약 라이카



カナミツ 輕油·重油 發動機

農林省御推獎機 回轉式マグネット使用 輕、石油式發動機、籾摺、精米製粉、精麥機、揚水ポンプ在庫品豐富



朝鮮總發賣元 森田商會機械部 釜山大倉町四丁目 電話六五六 振替釜山三四四七 (和錢滿算) 各地特約販賣店募集

金銀 金銀賣買會社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2)一一八〇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國成社

滿都人士待望도既久 우리의至寶 全篇特別公開 孫基禎、南昇龍 마라손世界制覇의全貌

가시면몰나요 日本譯名(逃げちゃ嫌よ) 雨

內務省警保局編纂 出版及著作關係法令集 定價金八拾錢 送料金六錢 發行所 東京銀座四ノ四 日本新聞協會

心頭雜革 瞬間幸福——金石松

世界動態

東一銀行紛糾事件眞相 申泰翊

新秋의創作陣
날개……李箱
川邊風景……朴泰遠
未完成……朱요섭
春夢……方仁根
愁雨……安夕影
疑問의毒死事件……金煥泰
姉妹……柳致眞

젊은文學徒의 그리는꿈 白潮時代의追憶……露雀 洪思容

映畫·演劇·音樂
◇映畫批評과監督……朴基采
◇最近의朝鮮映畫……申敬均
◇現代露國音樂……金管
◇素人劇의指導……金二三

科學
現代文化와氣……金鳳集
라듸오의放送機構……韓德奉
가을花草의展望……李德鳳

一裁縫 女學生服만드는법……任貞爀

小說作法 春園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光 九月號 定價三十錢

初等義務教育論 咸尙勳

朝鮮語(標準語)査定苦心談 李允宰·李克魯·朴允進·李熙昇·金允經·趙鍾薰·崔鉉培·李萬珪

三大懸賞

東京을단여와서……李光洙

太平洋건너서……柳瀅基

蘇聯의海軍現勢 青心生

暗行御使出道

◇漫畫 ◇笑話 ◇表紙及美麗한寫眞 ◇色彩特輯等의참된豪華版

한覇制을億廿

마라손王孫·南君戰勝記

燈火稍可親의-이가을에읽어야할好讀物

新涼日記 情熱의日記

名作上에나타난初秋風景 李軒求·李孝石·金煥泰

異域에서보낸九月의追憶 韓昇寅·許然

詩頌 五六島 李殷相 / 산타마리아 許保 / 潮水 馬鳴 / 病房 柳致眞 / 마을停車場 趙靈出 / 窓外 盧天命 / 저녁山村 吳時泳

新秋의小兒衛生 李聖鳳
新秋의婦人衛生 金錫煥
新秋의西洋料理 宋玉璇
幸福된家庭生活 宋今璇
兒童의本性과教育 金興濟
新聞經濟面읽는法 李健爀

衛生、家庭

童話·童謠 어떤姉妹……李永哲 전화……尹福鎭

一記者

西班牙革命의今後 韓普容

産業

東海岸鰮漁業 今年도景氣謳歌

一時不漁는지나고最近大豐漁 製品價格도大幅昂騰

東海岸의 今年度 鰮의 漁獲高는 初期에잇서서 鰮群의 回游가 늣저서 前年에比하야 激減이豫想되고잇든바 最近成漁期에 잇는 咸北은 連日前年以上의 水揚이잇고 慶北도 이미前年의約二倍에 達하는 漁獲高를 擧하고 잇스며 江原、咸南은 저윽히 不良하나 全體的으로 보아 未曾有의 豊漁라하야 前年以上의 成績을 擧하리라고 豫想하게 되엇다 따라 加工製品의 生産高도 成績이 자못 良好하야 八月十日現在에잇서 油九六二、四四四鑵, 搾粕三〇九、三五三俵에 達하얏다 一方 製品의 價格은 北海道의 不漁와 世界的需要增의 影響으로 油一鑵三圓九十錢 粕一俵四圓十七、八錢의 高價를唱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五割乃至 十割의 昂騰을 示하고잇슴으로 東海岸의鰮漁業은 今年亦是 豊漁와 價格昂騰의 二重奏로 벌서景氣를 謳歌하고잇다 그런데 今年의鰮은 例年에比하야 大形으로 一尾으로부터의 搾油가 高率 [illegible]升程度의것이 今年은 五割增의 一斗二升에나 達하야 이로 生鰮一〇의 價格은 三圓八十錢乃至 四圓이라는 未曾有의 高價를 示하고잇다

石炭	一、六六三	一一
松木工材	一、三〇四	
紅蔘	一	二、六七〇
白蔘	一	二二八
기	一	八
貨	六六	一、〇二一
合計	三〇、六二一	三六、八五一

平壤의洋襪을 米國에輸出

組合과五萬打契約

朝鮮의 低勞銀을 目標하는 家內工業의 普及은 一兩年來 顯著한 움직임을 보이고잇는데最近 福助足袋會社가 朝鮮의洋襪에 着眼하고 平壤洋襪組合과契約하야 米國輸出用 五萬打를平壤에서 製造식히기로 되엇다

七月中開城貿易

【開城】七月中 開城貿易狀況을 보면 總貿易額이 百十萬八百五十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九萬九千九十四圓의 減少인바 그 內容을보면 다음과갓다

類別	移入	移出
穀類	二七、三二二	三〇、三六五
植物類	一五〇	二三五
糖類	三九、〇七二	三〇六
酒類	三三、〇一五	四〇
調味料類	一八、八八六	四一四
野菜及果物類	一四、四三三	三、二一〇
海産物類	一七、五五六	四、八八八
其他飮食物類	九、九六〇	一〇、九二五
織物及絲類	一〇七、六三八	一六、四五一
衣類及裝身具類	一八八、〇三三	三、〇四四
文具及雜貨類	一〇〇、〇五五	一六、六六九
紙類	一四、三三七	九四一
油類	一七、一〇〇	一、六二六
藥品類	一三、二一三	三九、七二一
고무及毛皮類	三三、九三四	一九、一七七
木草材類	一九、二六〇	九、三七五
陶磁器及硝子類	二二、一二三	一、九七五
建築材料類	二〇、八〇〇	二、六六九
農具及肥料類	一四一、一四一	六三、三七七
金物類	二六、八二三	四七、〇六〇
燃料類	二六、八〇〇	三三三
機械類	一八、五八一	[illegible]
其他雜品	二二、五七三	三二、三三三
合計	五三六、〇八八	三三六、一〇〇
品名	輸入	輸出
粟	一〇、六二〇	一

營口金組에서 總代制를採用

【營口】營口金融組合에서는 現在 會員이 二千名以上에 達하는關係로 總代制를 採用하기로되엇는데 區域別日程과 總代數는 左記와갓다고한다

區域別	日程	總代數
一區(營口市)	廿一日	四人
二區(紹家堡子)	廿二日	九
三區(通子溝)	廿三日	十一
四區(八棟樹)	廿四日	八
六區(小方身)	廿五日	八
七區(紅草范)	廿六日	五
八區(老綿舖)	廿四日	六
九區(平安農場)	廿三日	十八
十一區(大石橋)	廿六日	一
十四區(磐山縣)	廿七日	一
十五區(靑堆子)	廿九日	四

豪雨繼續으로 鑛山被害도不少

鑛山課에서狀況調査

八月中의 豪雨로因한 鑛山關係의 被害에對하야 目下 總督府 鑛山課에서 調査中인데 아즉詳細한것은 알수업스나 大體에잇서서 坑內의浸水 選鑛所 製鍊所의 流失 鑛山의 道路橋梁의 破壞 沙汰의被害等 相當히 巨額에 達하리라하며 이것은 今年鑛産額에도 影響되리라하야憂慮되는터이라한다

平北서鰆漁獎勵

平北의 大和島近海부터 大廣島에 一帶를 制한 沿海에는 鰆의群集이 每年무리를지어오는데 이것을南鮮地方부터 約三百隻의 鰆漁船이 集來하야 年年 推定約六十七萬圓의 漁獲을 내고잇는데 一方 地元인 平北은 漁撈의 不完全과 從來 이指導에 等閒한까닭에 이러한 豊漁場을 南鮮漁業者에게 獨占되어잇는 實情에잇서 道에서는 技術員을 派遣하야 試驗을 行한結果 자못 有望하다는 確信을 得하게되어 來年부터 完全한 平北의 漁場으로하여 南鮮의漁業家와 比較하야 遜色이업도록 漁船을 改造하고 獎勵하게되엿다

閉店時刻制限 休日制制定

商店法案議會提出

內務省社會局에서는 國民生活安定對策의 一部門으로서 百貨店을 비롯하야 全國二百萬戶에 達하는 小賣商店舖에 使用되는 小賣商店從業員의 保護를 目的으로하는 商店法案을 議會에 提出키로 決定하고 基礎案을 得하얏슴으로 今週中에 社會局議를 開하고 原案決定後는 遲도 九月下旬이나 上旬까지 議會提出에 對한 諸般準備를 進行키로되엇다 社會局의 企圖하는 商店法案의 骨子는 小賣商店從業員의 保護見地로 全國都市及農村町村에 店舖를有한 小賣商店에 對하야 休日制의 制度와 閉店時間의 制限을 行코저한것이 眼目으로 今回勞務部에서 立案한要綱은 如左하다

▲適用範圍 (一)全國都市及勅令으로써 指定한町村에서 小賣商業 理髮業又는 理容業을經營하는商店 (二)떼파-드(百貨店)를비롯하야 大規模의小賣商店

▲閉店時刻制限 (一)一般小賣商店은 四月一日부터 十月三十一日까지는 午後十時 其他의時季에는 午後九時以後에 營業함을 不得함(右閉店時刻은今後審議에依하야 多少變更이잇슬지도모른다) (二)떼파-드及大規模의 小賣商店은 閉店時刻의 制限外에 十六歲未滿의者及 女子從業員에對하야 一日十時間을 超하야 就業케함을不得함

▲休日前의制定 (一)一般小賣商店은 每月一日以上 營業을 休止하고 使用人이잇슬때에는 이에對하야 休日을與할것 (二)떼파-드及大規模의小賣商店은 每月四日以上營業을 休止하고使用人에게는 이에對하야 休日을與할것

▲除外規定 左記店舖又는營業에對하야서는 閉店時刻의 制限을 適用에서除할것 但每月一日以上의休日을與할것
가、交通機關內 又는 船舶內의店舖
나、興業場 又는 娛樂場 博覽會 展覽會場의店舖
다、煙草及賣藥의販賣
라、郵便切手 又는 收入印紙의販賣
마、自動車用油類의販賣
사、其他主務大臣의 指定하는營業

今春繭生產狀況

收繭量은六厘增에不過하나 絲價高로價額은四割七分增

總督府 農業課에서 今年春蠶에 對하야 槪況을 集計한바에 依하면 掃立은 六十二萬九千三百八十二枚로 前年에比하야 六百八十七枚(一厘增) 收繭은 一千四百七十九萬二百二十키로로 九萬三千三百二키로 (六厘增)의 增大에 不過하엿스나 絲價高로이 生産價格은 合計六百一萬八千六百八十七圓으로 前年에比較하야 一百九十八萬八千八百八十二圓으로 四割七分의 增收이엇다

日用商品市況

二十七日 京城市內 雜穀市況을 보면 다음과갓다

▲大豆 强含 불만한 賣買도업스나 在庫稀薄하야 手持側賣惜으로 市勢는堅調를 持하다 目前에 端境期를앞두고 供給不足을念慮가 만흐나 新穀期가 切迫에따라 漸次 新豆先物時勢에 軟弱할것으로보인다 今日市勢는 每石에 龍山三等 一三、一〇 連良 一二、八〇 金汗 一二、五〇

▲粟 續落 賣行不振인데 天津、靑島粟이繼續入荷되야 咸興、元山方面은在庫가 豊富하야 賣急投物續出로 市勢는 連日繼續下落되고잇다 滿洲作況도 樂觀的으로 滿洲商人의 手持品 賣物도 不少하야別無賣買에 市勢만 續落되여 年內渡 新粟은 京城着 每石에八、二〇가량인데 今日市勢는 滿洲、奉天、四平街直積 八、六五 天津、靑島 直積 八、三〇

▲大麥 弱含 賣買는 大端히 閑散하며 市勢는 不變으로 今日市勢는每石에 秋麥(大邱) 九、〇〇 春麥(鎭南浦) 七、八〇

▲小麥 反落 天井不知로 續騰되든 小麥도昨今外麥의 反落에따라 騰勢가一息되어 最高價에서 每石約五十錢假量 反落되엇다 亦是 世界的供給不足이라 基調的强材가嚴存한 以上 大勢는 樂觀될것이나 一面 米價에比하야 大端히 高價인 麥粉의 消費는 減少難免임으로 一氣續騰하기도 困難하다 要컨대 現在時勢의 高價를 中心으로 保合되리라 豫測되다 今日市勢는 每石에

	現物	先物
沙里院	二〇、六〇	二〇、三〇
新幕	二〇、三〇	二〇、一〇

▲白胡麻 續落 天津品이 多量으로 繼續入荷되어 市勢는 一層軟化되엇다 當地實行도 閑散하며 今日市勢는 每石에 南京 一五、七〇 天津 一五、三〇

主要한副業展望 大麻栽培는어떠할가 (九)

鄭求興

大麻의 栽培는 距今四千年前 시치아人이 「볼가」河流域에 栽培한 記錄을 볼지라도 如何히 오래前 부터栽培하야온것이 推測될것이며 따라서 朝鮮에 輸入되어 栽培된것도 오래되나 그紀元은 漠然하다 그러나 大麻가 利用됨에따라 栽培는 全鮮各地에 보게되엇스며 氣候土質關係上 特殊한 地方에 發達을 보앗다 古語에 말하기를 「麻深한곳에 大麻를 栽培한다」라 한것과 가티 比較的 山間地方에 만히 栽培하고 잇섯다

그러나 中古時代 中國으로부터 棉이 傳來하야 普及되자 그用途를 棉에게 만히 빼앗기엇다고할지나 大麻는 大麻로 한特殊한 目的이잇고 需要가잇서서 栽培面積이 減함을보지안코 더욱더욱 增加하야 今日에 至하얏다

生産狀況

歐洲에서는 露國、伊太利、佛蘭西、白耳義가 重要産地이며 其他中國、印度、西伯利亞、米國、亞弗利加等에는 栽培하고잇다

이제最近農事統計를보면(單位 [illegible]) 世界의 最近數年間 大麻纖維生産은 다음과갓다

年次	數量
一九二四年	七四〇〇
一九二五年	五八六二一
一九二六年	五三九〇
一九二七年	四五〇三
一九二八年	五二二五六

日本內地의 大麻栽培狀況을보면 (農林省統計)

年次	作付段別(町)	皮麻收穫高(貫)
昭和二年	一三、三五三	三、一六六、三五一
昭和三年	一一、九二〇	二、六九〇、二四〇
昭和四年	一三、一二三	三、二〇三、六二五

朝鮮의 栽培狀況을보면 (農林局統計)

年次	作付段別(町)	收穫高(貫)
昭和元年	一六、八〇八	三、三六一、〇三一
昭和二年	一六、六九五	三、三三六、二〇〇
昭和三年	一六、四二〇	三、三三六、三三八
昭和四年	一六、一〇〇	三、二二七、六三五
昭和五年	一六、〇七〇	三、三二〇、二二二
昭和六年	一六、〇〇六	三、二二六、二二二
昭和七年	一六、〇二六	三、三三〇、二二六
昭和八年	一六、三二七	三、三三〇、三三六
昭和九年	一六、二六六	三、四〇三、三三六

▲昭和九年度各道別生産及栽培面積

道名	作付段別(町)	收穫量(貫)
京畿	九一八五	一六八七〇五
忠北	三三五〇三	五八二二九
忠南	一〇六七九	一六〇五六一
全北	一一二四七	一二九三二二
全南	一七七九〇	四二八八九六
慶北	二五二九三	五三三七〇〇一
慶南	三三〇四二	八八七四七六
黃海	五三八九	六五五六八八
平南	一〇三〇一	一〇五九五一
平北	五二〇四三	六五八四八四
江原	四九二四五	九五九五八八
咸南	二二九三四	四〇一五一八
咸北	一六九一〇	一六一五九七

朝鮮主要産地

大麻는 全朝鮮에 亘하야 栽培하고잇다할지나 그本來性質上 其産地는 特殊地方에 限定되엇스며 比較的交通不便한 山間地方에서 多産하고잇다 各道別로보면 下와갓다

京畿=漣川、抱川、加平
忠南=禮山、瑞山、扶餘
全北=鎭安、長水、任實、南原、井邑
全南=潭陽、谷城、求禮、順天、寶城、和順
慶北=義城、安東、靑松、盈德、尙州、金泉、善山、醴泉、榮州、奉化
慶南=居昌、咸陽、陜川、山淸、河東
黃海=金川、谷山
平南=順川、孟山、陽德、寧邊
平北=義州、龜城、熙川、定州、宜川、鐵山、龍川、朔州、昌城、楚山、渭原、碧潼、江界、慈城、厚昌
江原=春川、麟蹄、楊口、淮陽、三陟、旌善、平昌、橫城、洪川、華川、金化、鐵原、伊川、平康
咸南=定平、永興、高原、北靑、端川、新興、長津、甲山、三水、豊山
咸北=鏡城、明川、鐘城、穩城、慶興

就中 가장 産出이만흔곳은 全北道南原、任實、全南道谷城、慶北道安東、醴泉、平北道義州、宜川、楚山、江界、江原道旌善、平昌、三陟、咸南道長津、豊山、甲山、咸北道鏡城、明川各郡이다

栽培의槪略

朝鮮서 栽培하고잇는 大麻는 日本內地의 野州麻와가튼것으로 中國에서는 火麻라 漢麻라고도 稱한다 往往 野生도 보나 이것은 元來가 野生物이아니오 栽培大麻의 種子가 飛散하야된것이아닌가한다

大麻는 그本性이 初春으로부터 盛夏에 亘하야 生育하며 其適地는 日光이 잘비치는 平坦地로 風害에 근심이 업고 生育期에는 濕潤하고 日光의 直射가 激烈치아니한 氣象狀況을 조와하며 土壤은 砂土又는砂質壤土로 表土가 깁흔것을조와한다

栽培의 主目的인 纖維는 以上의 最良品을 生産하랴면 其栽培適地는 特가튼 河川에 接한 南面山間 緩傾斜地 又는 沖積層으로된 平地特히 肥沃한土地가 조타

大麻의 生育은 適當한 濕氣가잇고 短日月間에 伸長하며 成熟期에至하야 乾燥함이 조타 以上의 狀態에잇서서 纖維가 纖美하고 强靭한것을 生하고 이에 反하면 纖維가 粗大하고 脆弱하다

또 가튼大麻라할지라도 雄木、雌木에따라 多少 그性質이 다르다 吉野氏의 調査에 依하면

纖維에對한	雄木	雌木
纖維比例	一〇	九
纖維의强度	一〇五、五	一五〇、二
纖維의伸張力	一〇、九	一三、二

即 收量의 點에 對하야는 雌木이 雄木보다 나흐나 品質에 잇서서는 雄木이 낫다

新莊氏의 調査研究에 依하면 雄木=葉柄이 互生하고 葉狀葉이 細長하다 雌木=葉柄이 對生하고 各小葉이 短하며 圓滿하다

이제 全朝鮮的으로 栽培狀況을보면 北部에서는 五月에 播種하야 七、八月雨期에 第一伸長하며 雨後八月下旬乃至九月 乾燥期에 至하야 收穫함으로 北部地方의 氣候狀態는 大麻栽培條件에 適合하나 南部에서는 大麻栽培期에 播種하야 乾燥期에 生育하고 成熟期가 雨期에드려감으로 大麻栽培에 氣候上適當하다고는 볼수업다

叙上原因에 依하야 北鮮地方特히 蓋馬高原에 接近한곳에서 良品을 産하며 其産品은 纖維가 纖美鮮麗하고 强靭하다 南方으로가면 品位도 漸漸 劣惡하다 그러나 慶北道 安東産大麻는 優良하야 有名하다 이는 同地가 大麻栽培上 土質이適合한것도 原因이되나 從來 그栽培法及 調製法이 巧妙한結果이다

朝鮮大麻 生育狀況

水原農事試驗場의 試驗成績에 依하야보면 播種 四月九日 畦幅六寸에 條播한후 五月七日及 十九日 間引하야 株間을 一寸假量으로 하고 四月二十一日 五月九日에 二回호미로 中耕하고 七日에드려 乾燥할때는 灌水하며 八月中旬 下葉이 漸次 凋落되고 莖部가 稍히 黃色을띠면 收穫하야 麻風呂에 너어 蒸한후 剝皮한다

生育狀況

區別	月日	
發芽	四月十七日	
收穫	八月十九日	
草丈	六月六日	〇尺二四
同	六月二六日	四、三八
同	七月六日	五、二八
同	八月六日	七、五二

大麻는 또한 種子의 大小에依하야 比率이달르다 이제 農林省農事試驗場報告에依하면

	大粒	中粒	小粒
收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發芽比率	九六	九九	九八
一貫의價	一、九〇五	一、九〇五	一、九六〇

中粒은 收量도 만코 品質도 조타 小粒은 品質은 조흐나 收量이 적으며 大粒은 收量은 만흐나 品質도 劣惡하다 此點 栽培上 注意할것이다

日本內地 著名한 地方의 播種期日을보면 如左하다

栃木	三月下旬—四月上旬
新潟	四月下旬—五月上旬
長野	四月下旬—五月上旬
岩手	四月上旬—五月上旬
富山	三月下旬—四月中下旬
島根	三月下旬—四月上旬
廣島	三月下旬
熊本	三月上旬—三月下旬

要컨대 降霜에 근심이업는限 일즉播種함이 有利하고 播種이느즈면 自然 纖維의 軟弱을 未免한다

—(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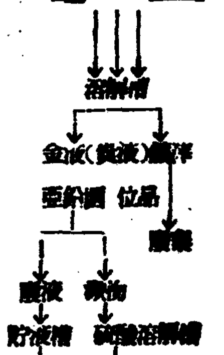
青化製鍊法

金聖浩

緖言

青化製鍊法이라함은 青化加里 又는青化曹達의 溶液이 金鑛石(鑛尾)中의 金銀을 溶解하는 性質을 가진바 그金銀을 溶出한 含金銀青化液을 亞鉛과 接觸케하야 金銀을 沈澱케하고 그沈澱된 金銀物에 熔劑를 配合 熔解하야 金銀을 回收하는方法이다 青化法에는 滲出青化法과 攪拌青化法이 잇는바 鑛尾의 性質과 浸透關係에 依하야 運用한다 滲出青化法은 攪拌青化法에 比하야 少量의 硫化鑛又는 砂鑛을 含有한것은 溶解率과回收率이 良好하나 鑛泥를多量含有한 鑛石은 此法에 不適하다 그런데 滲出青化法은 攪拌青化法에 比하면 工場施設及 一般設備가 簡便하고 金銀의回收率이 良好한 關係上 小規模의 鑛山에서 鑛尾處理를 할에 主로 此法을 使用하고잇다 攪拌青化法은 滲出青化法에 不適한 泥狀鑛尾를 處理하는데 使用하야 [illegible]

青化製鍊系統圖



青化製鍊法의來歷

青化加里溶液이 金銀을 溶解하는 힘을 가진것을 發見하기는 約百三十年前(西曆一八〇五年)「하-게날」氏에 依하야서이나 實地應用하게는못되엇섯다 今日 鑛山에서 實際應用하는 法을 發明하기는 四十四年前(西曆一八九〇年)「마크아사-와 「푸오레스트」兩氏에 依하야 된것이다 此法은 青化加里溶液을 鑛尾에 注入하야 金分을 溶出하고 그溶液(貴液)은 亞鉛末로써 金分을 沈澱케하는 法이니 [illegible]

그러면 [illegible] 鑛山에서 [illegible] 滲出青化法에 [illegible] 一般鑛山에서는 [illegible] 作業하고잇다

青化製鍊에適當한鑛尾

青化法을 應用함에는 먼저 其鑛尾가 青化製鍊에 適當한가를 考察하야 實驗함이 必要하다 此法에 適當한 性質의 鑛尾를 列記하면 다음과갓다

一、普通混汞製鍊의 金을 水銀과 混汞金이되기 容易하지 아니한 金鑛石이나 鑛尾는 青化法에도 適合하다

金은 水銀에 接觸하면 容易히 汞化金이 되는 性質이 잇스나 鑛石中에 存在한 金은 包圍된 石英과 不完全 又는 含有鑛金屬에 妨害되어 汞化金을 完全히 作成하지못하는 境遇가 不少하다

二、鑛尾의 組織이 緻密한 鑛石은 藥液의 浸透가 不完全하야 金을 完全히 溶解하기 難하다

此種鑛尾는 微細하게 粉碎하지아니하면 溶金의 目的을 이루지못할것이다 粗鑛이 粉碎하면 藥液의 浸透가 容易하야 微細하게 破碎치아니하야도 意外에 收金이 良好한 成績을 어들수잇다 即 粗鑛이 粗鬆한 鑛石은 破碎에 要하는 費用이 輕減될뿐아니라 多量의 泥鑛을 生치안흠으로 製鍊의 努力이 적다

金粒과青化製鍊과의關係

一、金粒의 表面積이 多하고 또 金粒의 表面形狀이 多角的이면 藥液에 接觸하는 部分이 多하야 그效力이 充分하다 또 金粒의 表面이 不潔하거나 或은 他種의 被膜으로因하야 鑛石中에 [illegible]되어잇슬때에는 青化液과 金粒과의 接觸을 妨害하기때문에 其溶金作用을 防害한다 金의 表面은 往往硫酸、硅酸鐵、酸化鐵 又는 硫黃等으로 被包되어잇는데 此를 銹金이라 稱한다 銹金은 直接青化液으로 溶解하기 極難하다 그런故로 銹金을 含有한 鑛石은 青化法에 不利하다

二、金粒은 細微할수록有利하다 金은 大槪 青化液에 溶解性이잇지만 其金粒이 粗大한것은 長時間을 要하고 反對로 金粒이 細微한것은 溶解하기 容易하다 適當히 鑛石을 粉碎하야 金粒과 鑛石과의 分離를 完全하게할수록 收金率이 良好하다 金粒이 粗한鑛石은 水銀과가티 汞化金이잘 그面이 [illegible]에 接觸을 容易히 多面的으로 할수있는 아말감法에 依하야 微細한 金粒은 [illegible]

鑛出青化法에不適한鑛尾의處理

(가)硫化 [illegible] 흐리 [illegible]
(나)砒石 又는 [illegible]
[illegible]

鑛石中에 粘土 泥를 交하고 又는 金屬의 硫化物 酸化物 酸性鹽類를 包含하야도 青化法에 不利하다
硫化金屬(硫化鐵黃銅鑛方鉛鑛) 及 其分解로 因하야 生하는 各種의酸性鹽類 及 酸化物은 青化液을 變質하는 作用이잇다
此等의 物質이 存在할時는 水洗와 中和作用으로써 其害를 除去할것이다 그러므로 如此한 鑛石은 操業法이 複雜하게되고 製鍊費를 增加하게된다
普通 鑛石이되는 石英은 金溶解上 何等의 影響이업지마는 粘土는 甚히 有害하다 鑛石中에 酸化鐵(卽褐鐵鑛) 又는 水酸化鐵(卽褐鐵鑛)인데 硫化鐵이 分解할때 生하는 一層有害하다 卽 此等의 物質은 青化液을 分解하게할뿐아니라 其細粉은 粘質을 帶하야 金粒에 附着하야 青化液과의 接觸을 防害함이 甚大하다 그러므로 此種의 鑛石은 焙燒해서 其化合水를 驅逐하야 此害를 除去할것이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八七〇一	京畿楊平郡靑雲面 江原橫城郡書院面	八月一日	京城府太平通 代表者 吳昌殷 同內資町 金東敏 旌善郡東面 [illegible]潤壁
一三二四八	咸南德源郡赤田面	八月一日	咸興府大和町 代表者 蔡奎濟 楊州郡柴屯面 崔秉鏞
六四二一	咸北鏡城郡朱南面	八月三日	淸津府彌生町 眞鍋淺吉
六五〇八	同	同	同

◇受託者 更迭에因한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五五三	江原三陟郡所達面	八月一日	京城府太平通 三陟開發株式會社
一二五五四	同	同	同
一二五五五	同	同	同
一二五五六	同	同	同
一二五五七	同所達面下長面	同	同
一二五五八	同所達面	同	同
一二五五九	同	同	同
一二五六〇	同	同	同
一二五六一	同所達面上長里	同	同
一二五六二	同	同	同
一二五六三	同	同	同
一二五六四	同所達面上長面下長面	同	同
一二五六五	同上長面下長面	同	同
一二五六六	同面上面	同	同
一二五六七	同上長面所達面	同	同
一二五六八	同上長面	同	同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一一六三九	咸南端川郡南斗日面	中村六行	端川郡南斗日面中村政治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九日屆出
一二八三八	忠北淸州郡江內面 江西面	梅林襄	高陽郡漢芝面朴漢甲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十二日屆出
九五四二	平南順川郡北倉面	岩瀨亮	京城府初音町岩屋信榮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三日屆出
九八九三	京畿安城郡金光面	朴晋陽	金化郡金化面[illegible]新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三日屆出
八六三五 一一三三三 一一三三四	平北江界郡立館面 同江界郡立館面前川面	岩村長市	江界郡立館面古賀金治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三日屆出
一一七〇二	忠南禮山郡應峰面 洪城郡洪北面金馬面	劉載烈	洪城郡金馬面金元會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三日屆出
一二九五一	平南寧遠郡小白面	小林鑛業株式會社	寧遠郡小白面李秉祚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三日屆出
一三〇九〇	平北定州郡高安面	姜偉情	鎭南浦府碑石里韓章尙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四日屆出
五五五九	咸南定平郡文山面	小西隆太郞	元山府明治町山十右衛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四日屆出
七〇四九	全南寶城郡福內面 餘白面	後藤虎雄	京城府永樂町熊城鐵三郞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十日屆出
四九四一	江原高城郡新北面	本山淸江	同郡[illegible]好町三好唯吉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七日屆出
一〇四七二	全北淳昌郡金果面 全南潭陽郡金城面	原面事業株式會社	永興郡長興面三高良之助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八月七日屆出

黃昏 (168)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전경(前景)(四)

「흥! 어듸 할대로 해보렴으나……그러나 그러케 만만치는 안흘걸」

복술이는 공장사무실을 나오며 혼잣말모양으로 이러케 중얼그렷다。

그러나 분이는 아무 대꾸도 업다。

복술이는 엇전지 분이에게대해서 미안한생각이 들엇다。

분이는 원악약질인데、일에부처서 몸이 더욱 쇠약해 가고 또 주직이때문에도 단단히 골치를 알코잇다。그런데 또 운수사나운 사람은 잣바저도 코가 터지는격으로 주임은 두사람을 불러다노코 공교히 분이만 가지고 닥가세이지 안헛는가?

복술이는 불현듯 가엽슨 동무를 껴안어주고십흔 눈물겨운 야릇한 충동이 이러나는것을 늣기고、

「얘、뭘 걱정하구잇서?」

하고 위정、눙흔소리로 나물하듯 말하엿다。

「앤 누가 엇재니?」

하고 분이는 아무러치도 안타는듯이 말하엿스나、사실은복술이한테도 조흔낫츨 가질수업섯다。복술의말을 듯고보니더더욱 외로운 생각이 가슴밋흐로 숨여들엇다。

「그럼 너、왜그러니?………그까짓게 그런다기로 무슨 걱정이냐?」

「걱정은 누가 무슨 걱정이란 말이냐……」

「그럼 왜 그리고잇서? 언젠 무슨 존소릴 들을줄 알엇드냐 으레 그릴걸 각오하고 잇는건데……」

「그리기 누가 무얼하니?」

하고 분이는 그제야 애오라지 우숨을 보이며、

「뭐니 뭐니해도 년、동펄이더이다」

하고 복술이를 처다보앗다。

「뭐?」

복술이는 대뜸 이러케 쏘아부치고

「요년아 뎌은 무슨 말라죽은 뎌이람말이냐?동펄이가 그래내한테 무슨상관이냐?망할년…」

하고 이번은 복술이가 깔깔웃어해젓다。

「호호호……이년아 절보가 그러케 생각하고 잇다날이지어 되 네가 그러탄 말이냐?헐보는 꼭 그러케……」

「그러케란 뭐냐?」

복술이는 어선도 못하게 톡쏘다。

「그전만치 아는모양이 아니든그래?」

「그전엔 누가 뭘 햇니?」

「아니 뭐 모른것다만 그사람은……」

「그는 그고 난 나지、넘의일 내가 알게 뭐냐?」

복술이는 한때 자기의말도 용지거지지 안흔배아니나、어미지 나가버린딸이라 바더이 나도록 분인해버렷다。

「요년아 입은 빙두레도 주뎌는 바루 불라고……바루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저금이라고 말해라」

「때-갈년、난 그런짓 안한다……참말 배지가는사람이야」

「흥! 배지니까 편지쓰기가조치……어듸 두고 보자」

「그래 두고 봐라」

하다가 복술이는 까닭업시우숨이 나서

「두고 보면 너처럼 그럴술아니?……너나 실컨 해먹어라」

하고 빙긋 우서주엇다。

「요년아 해먹는건 뭐냐?」

하고 분이가 재처 빨죽해지라는것을 복술이는 얼른、

「딴、사실、주직이때문에 욕먹은거다。……영팡인줄 알어라…철보말이 오늘아침엔을 누가한건지 다알고잇더구 그리지안튼?너하고 그말하는것부터 벌서 말속에 말잇는게 아니냐?나가드면 영팡이겟다」

하고 빗대어두고 우섯다。

「영팡?」

하고 분이는 순간、어이업는 우숨이 나라는것을 참고、

「너처럼、뉘덕에、욕먹을것을 모면햇다면 그야 영팡일런지 모르지」

하고 맘의미로 우섯다。

「요년아 여래……」

하고 복술이가 분이를 쿡찌집어주랴는때에 분이는 우스며 제자리로 달려왓다。

그리자 겻헤서 일하고잇든 여러사람이 궁금햇든듯이 이편으로 시선을 주기도하고、요란한 소리속에 귀를 기우리기도한다。

「뭐래?」

하고 겻헤잇는녀공이 분이에게 물엇다。다른사람들도 분이의대답을 기다리는듯 그를 본다。

「뭔、뭐래……욕먹엇지 칭찬 들엇겟니?」

하고 분이는 이어서、

「인젠 정말 주종렴엄이라드라、한군도 용서안한대……옷지를 말고 허리끈이나 단단히 졸라매라」

「흥! 오늘아침 그일때문에 약이 머리꼿까지 올랏슬려지。」

여러사람은 요란한 기겟소리가운데서 이상한 불안과 흥분을 늣겻다。